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총력

전주시, 지자체 최초 재난관리기금 이용 다중이용시설 등에 열화상카메라 10대 추가 설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주시가 열화상카메라를 늘리고 손소독제를 배부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열화상카메라 10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한 최초 사례다.

시는 구입한 10대의 열화상카메라를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역과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 전주시 차량등록과에 각각 설치했다. 또, 전북대학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지인병원 등 선별진료기관 4개소에도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됐다.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는 25일부터 가동될 예정으로, 작동방법과 운영요령 등의 교육을 받은 전담 모니터링 공무원 60명이 발열자 감시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시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휴대용 손세정제도 배부기로 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3000개 분량의 손소독제 제조용 키트를 추가 제작해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배부기로 했다. 앞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1000개의 손소독제 제조용 키트를 배부했다.

나아가 시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361개 약국의 마스크 보유현황도 지속적으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회의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위인 심각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24일 오전 전주시청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 상황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주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실·국·과·동장 등 부서별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을 보고 받고 확산 방지와 방역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아파트 방역 왔던 50대 검거 남의 집 들어가 귀금속 훔친 혐의

아파트 방역을 핑계로 남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익산시내 모 아파트에서 "방역하러 왔다"며 B씨의 집에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던 9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부패방지 교육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의원 윤리·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의회는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 등 80명을 대상으로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윤리강령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해 2시간여 동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인 정승호 강사가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행동강령의 이해'라는 주제로 의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무가 뒤따른다고 강

조했다.

이밖에 부정 청탁 금지법이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 위주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청렴한 공직자상을 제시했다.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기적인 교육과 자정 노력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반려동물 위한 맞춤형 안녕 캠페인 추진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보호 위해 전국 최초 반려동물 구호키트 제작·배부

동물친화도시 전주시가 재난지역의 반려동물에 대한 구호키트를 제공하는 등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의 구호키트 제공은 전국 최초다.

24일 시에 따르면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확보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들여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안녕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위한 안녕 캠페인의 핵심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의 구호키트를 제작해 배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구호가 가능한 키트로 강아지용과 고양이용으로 나눠 제작된다.

반려동물 구호키트는 전주시 동물복지 다움마당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용이 편하고 안전성을 갖춘 응급처치 품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도 제작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안녕 캠페인의 시 민 홍보를 위해 '함께 놀자! 댕댕아~', '같이 살자! 길냥아'를 주제로 강아지와 고양이 마스크를 제작해 널리 알려나가고 사업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반려동물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신설한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동물친화도시를 조성 중인 시는 생명존

중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 재활센터도 지정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보호센터로 들어온 유기동물은 10일의 분할 공고기간 이후에도 반환되거나 분양되지 못할 시 유기동물 재활센터로 보내 공격성 순화교육 등 재활교육과 길들이기 훈련 후 개인과 사회복지 시설에 분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해왔다. 또 펫티켓 안내팸팸 설치, 반려동물 배변봉투 배포, 공공장소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반려동물 재난지원반 추가 운영 등 동물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시민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시민과 기관·단체 등이 전주 전역 소독활동 돌입키로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 시민들과 손잡고 전주 전역을 소독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4일 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식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시민들의 역할을 총 집결해서 전주 전역을 소독하기"라며 범시민운동 형태의 '시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가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일제 소독을 정례화해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선 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 소독주간으로 정하고 거주지와 주변, 공공기관, 다중이용 집합공간 등에 대한 소독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전주 모든 시민과 기관·단체 등이 전주 전역에 대한 소독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민들의 경우 내 집과 가게, 동네, 집 앞 골목길, 공동체 공간 등을 소독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 소상공인 등의 경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과 작업실, 영업장 및 주변을 일제 소독하게 된다.

또한 도로와 공원, 전주역, 고속·시

외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체육시설, 버스, 택시 등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집합공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각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일제 소독의 날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jonju.go.kr)와 현수막, SNS, 페이스북, 전단지 등을 활용해 홍보하는 한편, 각 동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 자원단체, 유관기관 등의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기본은 철저한 소독과 마스크 착용"이라며 "위기 상황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만큼, 전주 전역을 일제히 소독하는 초강력 대응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완산구, 공원 화장실 일제정비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황권주)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화장실을 쾌적하게 바꿔나가기로 했다.

완산구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원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

생한 만큼 완산구 권역의 57개소 공원 화장실에 대해 매일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화장실 내·외부 청소를 강화하고 소변기와 대변기, 세면대의 스티프소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장실 내에는 감염예방 수칙 안내문과 손 씻기 포스터도 부착한다.

이와 함께 구는 그간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온 노후 화장실에 대한 재건

속도 추진한다. 구는 올해 효문공원과 풍남공원의 남녀 미분리 화장실을 남녀를 분리해 재건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완산구 권역의 남녀 미분리 공원 화장실 12개소를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재건축할 방침이다.

동시에 구는 불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고 공원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파손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